

K K K K K ... KIA 마운드 최지민의 발견

한화와 연습경기 6-0 승리 최지민 6회 1사 만루에 등판 2타자 연속 삼진에 2이닝 퍼펙트 특급 신인 계보 잇기 기대감

KIA 타이거즈 마운드 '슈퍼루키' 계보를 잇기 위한 최지민의 도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KIA는 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한화 이글스와 4번째 연습경기를 소화했다.

2군 선수단에서 캠프를 준비했던 베테랑 나지완이 이날 1군에 합류해 지명타자로 모습을 드러냈고, '필승조' 전상현도 첫 실전 피칭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첫타석에서 중전안타로 타점을 만든 나지완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병살타로 물러난 뒤 세번째 타석에서는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두 번째 타점을 올렸다.

9회에 나온 전상현은 7개의 공으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첫 피칭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1km.

이날 KIA는 선발로 나온 이민우의 4이닝 무실점 호투 속 김석환의 멀티히트-타점, 박찬호의 솔로포 등을 묶어 6-0 승리를 거뒀다.

승리의 또 다른 주역은 '좌완 루키' 최지민이었다.

원래 계획은 이민우, 유승철에 이어 7회부터 최지민이 등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5회를 잘 처리한 유승철이 6회 제구 난조로 3개의 볼넷을 내주는 등 1사 만루에 몰렸다. 투구수가 37개에 이르는 최지민이 계획보다 일찍 마운드에 투입됐다.

긴박한 상황에서 한 바자 빠르게 마운드에 올랐지만 최지민은 침착했다.

첫 타자 이성근을 상대로 초구 헛스윙을 유도한 최지민은 두 번째 공은 스트라이크존에 꽂아 넣었다. 3구 볼에 이어 4구째 삼진.

정민규와 승부에서는 연속 파울을 유도한 뒤 5구째 변화구로 스탠딩 삼진을 잡고 위기를 정리했다.

7회도 빠르게 지웠다.

첫 타자 임종찬을 상대로 세 번째 탈삼진을 뽑아낸 최지민은 허인서를 추구에 2루 땅볼로 돌려세웠다. 그리고 이원석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7회를 끝냈다.

8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최지민은 장지승을 상대로 5번째 탈삼진을 기록하고, 2이닝 퍼펙트로 등판을 끝냈다.

세 번의 연습경기에서 15타자를 만난 최지민은 피안타 하나는 내렸지만 볼넷 없이 9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정해영-이희리 계보를 이을 특급 신인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지민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변화구 제구가 잘 돼서 타자들이 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캠프 초반까지 손에 잘 익지 않았던 새 구종 체인지업을 활용하면서 좋은 승부를 펼치고 있다.

최지민은 "슬라이더는 원래 자신 있고 체인지업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계속 연습하고, (양)현종 선배한테도 물어봤다"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최지민의 장점은 승부를 즐긴다는 것이다. 1사 만루에서 긴박하게 마운드에 올랐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겼다.

최지민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상황이 많아서 긴장보다는 즐거웠던 것 같다. 긴장하면 내 공을 못 던져서 집중을 많이 한다"며 "(연습경기를 하면서) 같은 팀 타자보다 다른 팀 타자를 상대하는 게 조금 더 즐겁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캠프를 거치면서 최지민은 한 단계 성장했다.

최지민은 "타자를 상대하는 게 좋아진 것 같고 변



KIA 신인 최지민이 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연습경기에 등판해 공을 던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화구도 하나 만들었다. 직구 스피드는 많이 안 나오지만 포수한테 들어가는 게 좋아진 것 같다. 볼 끝이 좋아졌다"며 "삼진을 이렇게 많이 잡을 줄 몰랐는데 변화구 하나를 더하니 잘 된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과감하게 들어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좋은 흐름으로 프로 데뷔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

만 어떻게 위기를 넘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최지민의 프로 첫 성적도 달라질 전망이다. 불펜 자원으로 주목받는 만큼 연투도 최지민에게 남은 과제다. 최지민은 "연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잘 모르겠다. 연투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아직 구속이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스피드를 생각하다 보면 다른 게 안 되니까 마운드 올라가면 마음 비우고 열심히 던

지려고 한다"며 "위기 상황이 오면 제구에 더 중점을 두어 최대한 안 맞게 던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KIA는 9일 같은 장소에서 한화와 이변 캠프 마지막 연습경기를 치른다. 세 외국인 투수 선놀린이 선발로 처음 마운드에 오를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코로나 확산에 당분간 캠프 체제 유지

코로나19 확산세로 KIA 타이거즈가 당분간 캠프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KIA는 캠프 종료로 앞두고 '코로나 비상' 상황을 맞았다. 코로나19 양성자가 나오면서 6일 KT 위즈와의 연습경기가 취소됐고, 7일에도 양성 반응자가 추가됐다.

KIA는 8일 "휴무일이었던 지난 7일 선수단과 현장 직원 전원이 자가진단키트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코치 2명과 선수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KT 위즈와의 연습경기를 위해 기장을 찾았던 KIA는 경기가 끝난 뒤 진행된 자가키트 검사 결과 코치와 현장 직원이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6일 경기를 취소했다.

6일 양성 반응이 나왔던 선수 1명은 샘플 불량에 따른 재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선수의 룸메이트는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양성 반응(5명)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3명)을 받은 선수 및 코치, 직원은 총 8명이다.

KIA는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확진된 이들을 제외하고 8일 한화와의 연습 경기는 예정대로 소화했다. 하지만 추가 확진 등의 우려가 있어서 고민이 깊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KIA는 시범경기 원정 8연전 기간 캠프 선수단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KIA는 12일 창원으로 가 NC 다이노스와 시범경기 첫 경기를 치른다. 13일에도 NC를 상대하는 KIA는 이후 대구 삼성전(14·15일), 수원 KT전(17·18일), 사직 롯데전(19·20일)을 소화한다.

21·22일 두산과의 첫 홈경기에서 원정 8연전이 일정이 기다리면서 예년과 달리 시범경기에 맞춰 선수단 몸집을 줄이지는 않는다.

김종국 감독은 "오미크론 상황도 있고 지금 선수단 체제로 원정 8연전을 다녀온 뒤 (인원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교체 선수들을 부르는 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원정에 선수들을 많이 데려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웃카운트-이닝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틀을 조율하면서 넓게 선수단을 살펴볼 수 있는 연습경기과 달리 시범경기는 정해진 이닝과 아웃카운트에 맞춰 경기를 진행한다.

그만큼 시범경기는 개막 엔트리 구성을 위한 1차 관문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로 내일을 예상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 전개되면서 '캠프 체제'는 유지된다.

9일 연습경기를 끝으로 공식적인 캠프는 끝이 나지만, 끝나지 않는다.

한편 KBO는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무관중으로 시범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시범경기는 12일부터 29일까지 팀 당 16경기씩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챔필 입장료 동결 시즌권·게임권 판매

KIA 타이거즈가 2022시즌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입장요금을 동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시즌권과 게임권 판매에 들어간다.

시즌권은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BO 정규리그 경기(72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으로 중앙 테이블석과 챔피언석, 서프라이즈석, K9/K8/K5석을 대상으로 하며, 정상이 대비 20~25% 할인해 판매한다.

중앙테이블 2인석은 489만6000원, 3인석은 688만5000원, 챔피언석은 256만5000원, 서프라이즈석은 126만9000원이다. K9석과 K8석은 각각 81만원, 74만8800원에 판매하며 K5석은 60만4800원이다.

KIA는 또 36경기·18경기·주말 10경기 등 경기 단위별로 묶어 게임권도 판매한다. 서프라이즈석과 K9/K8/K5석을 대상으로 게임권을 운영하며, 정상 가격보다 10~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시즌권과 게임권은 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광현

김광현 3년 만에 KBO리그 '유턴' SSG와 4년 총액 151억원에 계약

원손 투수 김광현(34)이 4년간 151억원을 받는 조건에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계약하고 3년 만에 KBO리그로 돌아왔다.

SSG 구단은 김광현과 연봉 131억원, 옵션 20억원 등 4년 총액 151억원에 계약했다고 8일 발표했다.

SSG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던 김광현, 추신수(40)와 KBO리그 최고 홈런 타자 최정(35)이 힘을 합쳐 '어메이징 랜더스'(Amazing Landers)라는 구단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올 시즌 야구 흥행 바람이 구도 인천에 착륙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뒀다.

SSG 구단이 전날 KBO 사무국을 통해 MLB 사무국에 김광현의 신본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광현의 SSG 복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2019년 시즌이 끝나고 SK 와이번스(SSG의 전신)의 허락을 얻어 MLB에 진출한 김광현은 이로써 새로운 SSG 유니폼을 입고 인천에 돌아온다.

2007년 1차 지명으로 SK에 입단한 김광현은 2019년까지 통산 136승 77패, 2홀드, 탈삼진 1천 456개, 평균자책점 3.27을 남긴 한국 대표 좌완 투수 중 한 명이다.

구단의 용단으로 MLB에 진출한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으로 2020~2021년 2년간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통산 10승 7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2.97을 올렸다. 김광현은 단체협약 합의를 둘러싼 MLB 노사협상이 예상 밖으로 길어져 올해 정규리그 개막마저 불투명해지자 SSG 컴백을 전격 결정했다.

/연합뉴스



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손흥민(가운데)이 수비진을 뚫고 슈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시즌 12호골...2경기 연속골

토트넘, 에버턴에 5-0 대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30)이 시즌 12호골과 함께 2경기 연속골의 기쁨을 맛보며 토트넘의 대승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17분 토트넘이 2-0으로 앞서 나가게 하는 득점을 올렸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에 해리 케인의 멀티골 등을 더해 5-0 대승을 거뒀다.

지난달 26일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27라운드에서 토트넘의 4-0 승리에 마침표를 찍는 골을 넣은 손흥민은 이로써 정규리그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정규리그에서 연속골을 넣은 것은 지난해 12월 브렌트퍼드전부터 크리스털 팰리스전까지 기록한 4경기 연속골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치러진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 미들즈브러와 경기(토트넘 0-1 패)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날 에버턴전에서는 토트넘을 대승으로 이끄는 득점을 올려 우려를 보기 좋게 불식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공식전 공격포인트 기록을

12골 6도움으로 늘렸다. 그는 정규리그에서 11골 5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UECL)에서 1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은 무함마드 살라흐(19골), 사디오 마네(12골), 디오고 조타(12골-이상 리버풀)에 이어 리그 득점 랭킹 4위로 올라섰다.

올해 정규리그 홈경기 첫 승리를 기록한 토트넘은 7위(승점 45-14승 3무 9패), 3연패에 빠진 에버턴은 17위(승점 22-6승 4무 15패)에 자리했다.

손흥민은 왼쪽 공격수로 나섰다. 최전방의 케인, 오른쪽의 데얀, 쿨루세브스키와 '삼각 편대'를 구성했다.

전반 13분 에버턴의 자책골이 나와 토트넘 공격진은 득점 부담을 덜었다.

4분 뒤 손흥민이 토트넘의 낙승을 기대하게 하는 추가골을 넣었다.

오른쪽을 돌파하던 케인이 공을 중앙으로 내주자 쿨루세브스키가 원터치 패스로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열어줬다.

페널티아크 오른쪽 부근에서 불을 이어받은 손흥민은 수비수들이 따라붙기 직전 재빨리 오른발로 슈팅해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은 공식전 2경기 만에 활짝 웃으며 전매특허인 '칠라 세리머니'를 펼쳤다.

/연합뉴스